국내 이주민 선교를 위한 DIASPORA 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위디국제선교회 WiThee Mission Interna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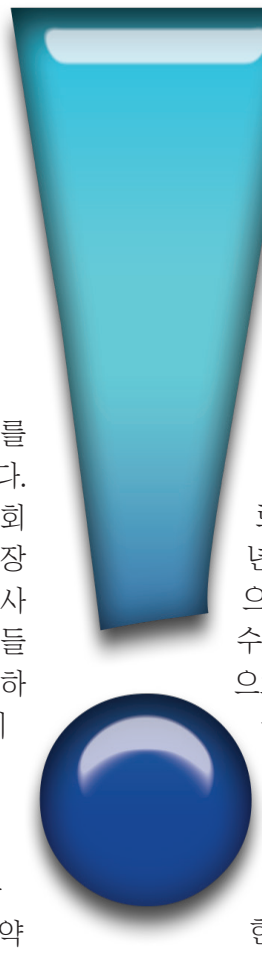
창간호 | 2021년 7월 1일 | 월간 발행

지금은 '이주민선교' 시대

코로나 펜데믹은 변화를 요구한다

최근 법무부 통계 이주민 50만 명 감소 됐으나 세계 곳곳서 한인선교사 5천 명 국내 귀국

선교현장 전문성 갖춘 귀국선교사 활용, 그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주민 선교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국교회 새 선교 과제로 떠올라



디아스포라 선교학자 사디리 조이 티라(Sadiri Joy Tira)의 책 '밀려오는 인파(Human Tidal Wave)'에서는 "디아스포라 이주민들의 이주로 인하여 세계 인구분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2억 7천 명이 넘는 국제 이주자와 7억 명의 자국 내 실향민으로 무려 10억에 가까운 흩어진 사람들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더불어 이 책은 "밀려오는 인파들에 교회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가?"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한국선교계는 지난 30년간 이주민 선교에 대해 도전하고, 성도들의 참여 지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다. 특히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강대흥 사무총장 취임 후, 국내 이주민 선교 사역에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강 사무총장은 이주민 선교사들과 귀국 이주선교사들의 연합을 주도하기도 하며, 교단 선교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어 이주민 선교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자원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이주민 유입현황을 살펴보면, 이주민의 숫자는 250만 명에 이르기까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을 기준으로 이들의 수가 200만 명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으로 이동한 이주민이 썰물처럼 급격히 빠져나간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주민들의 대거 유출 현상과는 반대로 세계 곳곳에 흩어진 약 5천 명의 한인 선교사가 국내로 귀국 이주하였다.

귀국 이주선교사들은 선교현장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현지 문화와 언어의 제약이 없다. 뿐만 아니라 모국인 한국의 역사와 정서를 잘 이해하며,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상황과 공간에 적응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따라서 현 코로나 상황에서 귀국 이주선교사들의 인적자원을 국내 이주민 선교에 동원하고 연합하는 방안은 이주민 사역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최상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일례로 최근 인도에서 돌아와 제주에서 중국 및 필리핀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김규진 선교사나, 네팔에서 귀국하여 안산 네팔 이주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박성규 선교사의 사역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코로나 시대, 국내의 이주민 선교단체와 지역교회들은 귀국한 이주선교사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주민 선교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KIMA)에 따르면, 각 교단 선교부 및 지역교회에서 국내 이주민 선교에 대한 선교적 이해가 부족하고, 이주민을 수용하는 면면에서 아직 미흡함이 존재한다. 이는 이주민 선교 관련 단체들이 귀국 이주선교사 그룹을 대상으로 한 역차별이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은 이주민 선교 시대이다. 이러한 때에 계속적인 선교의 진행과 대위임령의 성취를 위해서 '오해'와 '차별'이라는 걸림돌과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귀국한 이주선교사들은 지난 30여 년간 국내 이주민 선교사역을 해온 사역자들과 관련 단체들의 경험과 열매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국내 이주민 단체는 귀국 이주선교사를 이주민 선교의 현장으로 적극적으로 초청하여야 할 때이다.

글: 기획/ 편집팀

DN_202107_no.1.indd 1 2021-07-01 8:42:35

출신국과 언어·문화·종교 달라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

한국이주민선교단체협의회(KIMA)의 역할과 선교 방안

신상록 목사
KIMA 상임대표, 사단법인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

많은 분에게서 'KIMA (Korea Immigration Mission Association) 는 어떤 일을 하는 단체냐'는 질문을 종종 듣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019년 12월 26일 오륜교회에서 약 70여 명의 국내 이주민선교단체 대표들이 모여 재창립한 단체로서 두 돌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KIMA의 역사적 뿌리는 국내 이주민 선교의 맥을 잇고 있다는 점에서 30여 년에 이른다. KIMA는 2009년 시작된 이선한네트워크(이주자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 네트워크, MMNK)와 1999년 시작된 KIN(Korea Intercultural Network)의 선교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다만 KIMA가 이선한네트워크와 KIN과 차이가 있다면, 이선한네트워크가 국내에 이주한 미전도 종족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 동력을 일으키기 위한 운동이라면, KIN은 타문화권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연합회라고 할 수 있다. 반면 KIMA는 국내에 이주한 외국인들의 선교와 귀환한 해외선교사의 국내 정착 협력, 이주민과 내국인들의 믿음 안에서의 통합이 특징이다. 하지만 명칭은 달라도 국내에 이주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과 목표가 같다 하겠다.

KIMA의 정책 목표와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국내 거주 이주민 250만 명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출신국과 언어, 문화, 종교가 달라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선교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국내 이주민 선교단체들간의 선교 연합과 정책의 공유이다. '미얀마를 위한 기도회'와 같은 선교 현안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회와 포럼을 개최하여 한국 이주민 선교 로드맵을 제시하는 일이다. 또한 2개월마다 열리는 '리스닝 콜(Listening-Call)'을 통해 국내외 선교 동향을 공유하고 선교 정보와 사역을 나누는 일이다.

둘째, 국내에 귀환한 9천여 명의 선교사 가족의 국내 정착에 협력하는 일이다. 선교사들의 우수한 언어자원 활용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이며, 문화 공공 외교관으로서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외교

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도 협의를 계획하고 있다. 즉 해외 경험이 많은 선교사들을 활용한 공공외교(연성외교)단을 만들어 중·고·대학생들에게 한국의 발전과 해외 각국의 문화·역사·선교 활동들을 소개하여 신앙적인 가치관 형성과 세계 시민 의식을 심어주려고 한다.

또한 이주민선교단체 및 교회와 협력하는 사역 모델도 개발하여 귀환 선교사들의 정착을 돕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귀환 선교사들을 위한 숙소를 제공하고 예배 공간을 공유하는 사례는 아름다운 동행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경기도는 외국인들의 쉴터 리모델링 비용을 10개 단체를 지정하여 1,000만 원씩 지원한 바 있다.

셋째, 침체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이주민 선교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방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이주민 선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상호간에 TWO-WIN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KIMA는 6만여 개의 한국교회가 한국어 교육과 이주민 선교를 돕는 사역자를 교회 안에 세울 것을 제안한다. 이주민들은 안정적인 체류와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한다. 국립국어원이 인증하는 120시간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여기에 참여한다면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 자격이 주어진다. 비용도 매우 저렴하여 이 프로그램을 한국교회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주민 선교 백서를 발간하는 일이다. 국내 이주민 선교역사는 30여 년에 이른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주민 선교 백서가 발간되지 못하고 있다. 이주민 선교에 앞장서 온 선배들의 사역과 사역들은 이주민 선교에 소중한 자산이다. 백서 발간은 KIMA가 해야 할 책무이다. 다만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전문 인력이 참여해야 하기에 아직 논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섯째, 국내 이주민 사역자와 교회(단체)의 현황을 파악하는 일이다. 사역하는 이주민들을 유형별로, 체류자격(비자), 출신 국가별로 파악한다면 선교정책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국내 이주민 선교 로드맵(연차별 이주민 선교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이주민 통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뜻있는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여섯째, 국내 신학교에 이주선교학과를 설치하도록 자문하고 필요성을 촉구하는 일이다. 국내 대학원에 63개의 이민 관련 전공학과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신학교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선교학 교수들이 다문화 이주민 관련 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부담감도 크지만, 아직까지 국내 다문화 이주민 시장 형성이 덜 된 것도 그 이유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다문화사회이고, 머지않아 코로나 펜데믹 상황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 이주민 선교사 양성은 더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더구나 한국사회는 산업인력 부족과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앞으로 수백만 명의 이주민이 필요하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지금도 늦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곱째, 다문화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에 협력하는 것이다. 이미 국내에는 10개 이상의 다문화 이주민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기독교 사역자들이 설립·운영하고 있지만, 교사진이나 시설, 운영비가 열약하다. KIMA는 대안학교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대안학교 설치 관련 법이 통과되어 정식으로 '학교' 명칭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이다. 이주민 선교사들의 대안학교 설립을 촉진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자격은 무엇인지, 법적·행정적 요건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주민 정책 방향은 동포 활용과 투자이민 확대, 우수 인력 도입을 위해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적극적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귀환 선교사들과 국내 이주민 선교사들이 대안학교 설립에 나선다면 이주민 선교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홀리필드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이민관리'라고 하였다. 이주민 선교사에게는 '이주민 선교관리'라 할 수 있다. 창세 이래 사람의 이동은 국경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도 2000년도에 백만 명이 넘는 이주자가 있었고, 이들의 이주 목적은 취업, 결혼, 유학, 난민 등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만 아니라면 이민자의 수는 2021년 현재 3백만 명은 상회했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민족 복음화와 해외선교에 열심이었다. 그 결과 인구대비 선교사 파송 1위국이 되었고, 세계 20대 대형교회가 세워진 나라이다. 하지만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했던 국가의 사람들이 이주해 오자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그들을 당황해하거나 심지어 외면하기까지 했다. 그들을 돕고 선교하는 일은 특수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소홀히 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있다.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이주민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교회에 어린이·청소년 모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오래된 일이다. 이주민 선교는 한국교회와 이주민 선교사들이 함께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수많은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이 이주민 선교에 협력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 KIMA는 한국교회와 이주민 선교단체간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국내 대표 이주민 선교협의체로서의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선교정책 개발과 창의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 이주민 선교단체들의 선교 연합과정책 공유

└ 귀환 선교사 가족의 국내 정착 협력·모델 개발

└ 한국교회 내 한국어 교원과 이주민 사역자 발굴

└ 이주민 선교 백서 발간 및 이주민 선교 현황 파악

└ 국내 신학교 이주선교학과 설치 자문·필요성 촉구

└ 다문화 이주 배경 청소년 대안학교 설립 협력

‘이주민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

디아스포라 선교학 연재를 시작하며

“디아스포라 신문의 발간을 통하여 매월 이 책의 각 장을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 책은 이주민 선교 사역의 큰 동력과 도전을 주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돈과 사람이, 그리고 성령이 이동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인류 역사상 오늘날만큼 전 세계에 이주민들이 많았던 시대는 없었다. 본지가 소개하고자 하는 디아스포라 선교학(Scattered and Gathered)은 2004년도 태국 파타야에서, 2010년도 남아공 케이프타운 3차 로잔 대회에서, 그리고 2015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다룬 ‘이주민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다.

디아스포라 이주민을 위해 테츠나오 야마모리와 더그 버드살은 로잔세계복음전도위원회에서 각각 글로벌 디렉터와 회장직을 맡았다. 로잔 운동의 정신과 이들의 리더십 아래 ‘디아스포라 선교학’이라 지칭하는 이주민 사역에 대한 복음적 비전이 제시되고, 책의 형태를 갖고 사역의 방향과 방법이 제안되었다.

디아스포라 선교학의 태동으로 테드 야마모리와 에녹 완, 엘리아스 메데이로스, T.V. 토마스, 그레그 팩, 버질 슈미트 등 많은 디아스포라 선교 지지자들이 서로 연결되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더 광범위하게 구축하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며, 역사이다.

선교학자 고 랄프 윈터 박사는 디지털 혁명 직전의 세상과 세계 시장, 인터넷, 그리고 소셜 미디어가 만든 국경 없는 세상을 설명하면서 “세상이 변했다. 앞으로는 미전도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 세대는 대규모 이주와 세계화를 겪게 될 것”이라 충고했었다. 이 책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이주하는 많은 이유를 소개한다. 이민의 목적이 사회, 경제, 가정의 이유이기도 하고, 전쟁, 기근, 자연재해, 핍박, 그리고 빈곤과 같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환경에서 피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중 수많은 이가 인신매매라는 거대한 악의 압제에 빠져들기도 한다.

성경은 이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 방식으로 크게 역사하시는 듯하다. 이는 성서신학에서 덜 다루어진 주제이지만, 이 책은 그러한 불균형을 해소해 주기에 더 흥미진진하며 매력적이다.

세계선교의 여러 현실을 보았을 때, 수면에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의제는 성경 그 자체와 선교신학, 그리고 그 실천이다. 물론 교회는 양방향 모두에서 도전과 기회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이주민 종족을 위한 선교와 이들에 의한 선교에 참여할 때에 그렇다.

또한 특정 국가들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자신들의 고향으로 이주해 오거나 망명해 오는 이들과 그들 중 단 한 번도 기독교인들을 만나 본 적이 없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언행으로 실천하며 다가갈 기회가 주어졌다.

이 책은 그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고, 풍부한 자료와 통계적인 증거를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세계선교의 현상을 검토하고 있다. 성경적, 신학적 이해와 타당한 복음적 대응을 위해 성서를 연구하였고, 또한 실용적인 사례들과 가능성 있는 전략들, 영감을 주는 사례연구들을 통해 도전과 희망을 주고자 했다.

디아스포라 신문의 발간을 통하여 매월 이 책의 각 장을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 책은 이주민 선교 사역의 큰 동력과 도전을 주기에 충분하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한국의 지역교회마다 이주민 선교 사역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기원한다.

▶(연재)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주안대학원대학교
JUAN INTERNATIONAL UNIVERSITY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선교중심의 세계적인 대학
온전한 헌신, 온전한 교육, 온전한 신앙

주안대학원대학교(JIU)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능력을 갖춘 맞춤 교육을 통해 선교사와
“선교사를 지도하는 선교리더”를 양성하는 초교파 선교전문대학원입니다.
선교학을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박사학위(Ph.D)와 석사(MA, Th.M) 학위 과정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본교 홈페이지 www.jiu.ac.kr를 참고하시거나
교학처 (032) 446-52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4번길 11(주안대학원대학교)

“외국인 근로자 선교는 철저하게 복음 우선이어야 한다”

인연과 소명

Part I 상황(Situation) 에피소드

문창선 목사
편집인

나는 전문적인 무역인이었다. 온 세상이 좁은 듯 다녀야 하는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생산직에 있는 노동자들을 참 많이 보았는데,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다. 또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들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때와 계획 가운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마침내 이들을 위하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거의 모든 목회자가 소명을 받고 사역을 하게 될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과 두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체험하며 마침내 마음에 품고 있던 노동자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92년 신학생이었던 여름 어느 날, 안양에서 필리핀 이주 노동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그를 돕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방을 얻어 이사를 하는 것이었는데 부동산을 통해 방을 둘러보고 조건을 따져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었다. 그 사람 편에서 문제가 없도록 한 번 더 신중히 처리하면 되는 것이었다. 내게는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일이었는데, 다른 분들에게는 이 일이 어려웠나 보다. 그 필리핀 형제도 “이러한 도움은 처음 받아본다”고 고마워 했다.

이 일로 친구가 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다. 구교 신자였던 그는 나의 제안을 받아들여 교회에 출석하며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나는 잊고 있던 한 가지 일을 기억하게 되었다. 바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로 다짐했던 그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외국인 근로자 선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신학을 하며 겪고 있던 모든 문제와 주변의 상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해결되며 외국인 근로자 선교 사역에 몰두할 수 있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선교하며 구제를 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셨다. 부족한 자에게 그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지금도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표적들을 경험했다.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께서는 바나바(Barnabas)라는 성경적 영어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며, 바울과 같은 선교사를 세우는 사역을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통해서 하라고 하셔서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1992년 가을부터 서울 종암동의 컴퓨터 자수 공장들이 몰려있는 지역에서 필리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며 외국인 근로자 선교의 기틀을 잡아가게 되었다. 사역을 하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외국인 근로자 선교는 철저하게 복음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복음과 구제를 따로따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들의 과거와 역사에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받는 것에 익숙했다. 그래서 구제라는 측면에서 뭔가를 주었을 때, 오히려 그들의 독립 능력을 저해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알았다. 그러므로 나는 더더욱 복음을 강조했고, 오히려 그들이 이 사회에 구제를 베풀도록 이끌었다. 구정이나 추석에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며 관광이나 잔치를 베풀어 주지만, 오히려 우리 교회 성도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아원을 찾고 그들을 위로하며 잔치를 베풀었다.

▶(연재)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 안산 지부 정상엽 목사 인터뷰

“제자 양육해 무슬림 선교하고 인도네시아로 역파송하길”

인도네시아 이주민 3만6천 명 중 90%는 무슬림

이주민 성도들의 선교 의식, 자립심 키워야
20년간 목회자의 길 들어선 이주민 20여 명

정상엽 목사는 현지인 기독교 성도들의 제자화에 집중하고, 무슬림을 도와주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현재 국내에는 약 3만6천 여 명의 인도네시아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는 1995년부터 국내 인도네시아 이주 근로자가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 지부를 세워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훈련 사역과 긍휼 사역, 자국 선교사로 준비시키기 위한 훈련 사역을 해왔다. 신학교에 진학할 경우 학비를 지원하고, 선교회가 파송한 인도네시아 선교사들과 현지로 돌아간 형제들이 미전도종족을 섬기도록 재정과 기도 후원 사역도 하고 있다. 지금은 안산, 인천, 수원, 평택, 음성, 천안까지 6개 지부에서 사역하고 있다. 최근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 안산 지부를 섬기는 정상엽 목사를 지부 사무실에서 만나 사역 현황과 비전을 들어봤다.

- 국내 인도네시아 이주민 규모와 상황은 어떻게 되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의하면 2020년 3만6천 명 정도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통계에 잡히는 이들만 그렇고, 소위 불법체류자(미등록외국인)까지 합하면 5~6만 명 정도로 추정한다. 보통 비전문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오면 처음 3년, 연장하여 1년 10개월, 공장을 한 번도 안 옮기고 성실하면 최대 10년까지 머물 수 있다.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머물기도 하는데 평균 3~5년 사이 머물고 돌아간다. 종교는 90% 정도가 무슬림이다.”

-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의 사역에 대해 좀 더 소개해 달라.

“정기예배와 주일 오후 성경공부를 통해 인도네시아 형제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의료상담, 노동상담, 고용주와의 갈등 중재와 통역 지원 등을 함께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기독교를 믿고 들어온 형제들도 물론 도와주지만, 인도네시아 무슬림 형제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 노력한다. 교회적 기능도 하므로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교회로 말하기도 한다.

저희 교회(안산 지부) 성도는 원래 40~50명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작년 3~4월에 많이 출국해 현재 30여 명이다. 대부분 현지에서 교회에 다니던 친구들이다. 마을의 80%가 기독교인인 북 술라웨시 마나도에서 온 형제들이 그러한데, “저는 한국인 사역자이기 때문에 교회 친구들이 무슬림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인도네시아의 같은 마을, 같은 지역 출신이면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 기독교는 ‘선교’에 대한 의식이 약한 편이다. 제가 성도들에게 ‘인도네시아를 우리가 선교해야 한다’고 계속 당부하면, ‘서로 자신의 종교를 평화롭게 믿고 가야 한다’고 말한다. 인도네시아는 헌법에 6대 종교(이슬람, 개신교, 카톨릭, 힌두교, 불교, 유교)를 보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도 힘이 없어 전도를 못 하는 것이 아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자카르타의 중국계 교회들은 재정도 풍부한데 선교해야 한다는 생각은 거의 못 한다.”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 안산 지부 임원들.

- 한국에서 제자훈련을 받고 본국에 돌아가 사역하는 사례는?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는 안산뿐 아니라 인천, 수원, 평택, 음성, 천안 지부가 있는데, 1995년부터 지금까지 20명 정도의 목회자를 배출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일하다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회심하여 신학교에 들어가 목회자가 되었다. 그중 안산 지부 성도 출신의 목회자는 현재 수원 지부에서, 수원 지부 성도 출신의 목회자는 평택 지부 사역자로 섬기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돌아가 현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된 친구들도 꽤 있다.”

- 인도네시아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문화적 차이가 좀 있고, 성도들이 원하는 만큼 잘 따라와 주지 못할 때 조금 힘들다. 자립심이 약한 것도 느낀다. 여기서 돈을 버는 데도 십일조 개념이 약하고, 한국교회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월세가 100만 원씩 나오는데 5천 원, 1만 원 헌금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자신들이 십일조를 내는 것이 필요한데, 한국교회의 도움을 요청하기 원한다.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또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전화해 통역을 계속 의존하려는 것도 좀 어려운 점이다. 한국어를 배워 자꾸 스스로 말하려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 밖 친구들은 도움을 구할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한국어를 배우고 우리는 한국어 선생님을 초청해 공부하라고 해도 배우려는 학생이 별로 안 된다. 어찌 보면 신앙과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은 제가 본이 되어 이 친구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끌어올려야 하는 부분이다. 일단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헌신할 것이다. 저보다 앞서 안산 지부를 맡았던 사역자가 그랬다. 한국에 와서 토요일만 되면 술 마시고 노래방에 가던 형제였는데, 회심해서 인도네시아에 돌아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다.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있다.”

- 앞으로의 사역 비전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인도네시아인들을 제자화하고, 특히 그들 가운데 무슬림을 복음화하는 것이 비전이다. 그리고 이들이 주님을 잘 믿고 신앙이 자라 인도네시아로 역파송하는 것이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발행인 황덕영 목사
ICDM 이사장,
새중앙교회 담임

"디아스포라 현상은 성경 역사만큼 오래돼...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 열매를 촉진하고, 이주민 선교 정보 공유와 사역의 허브가 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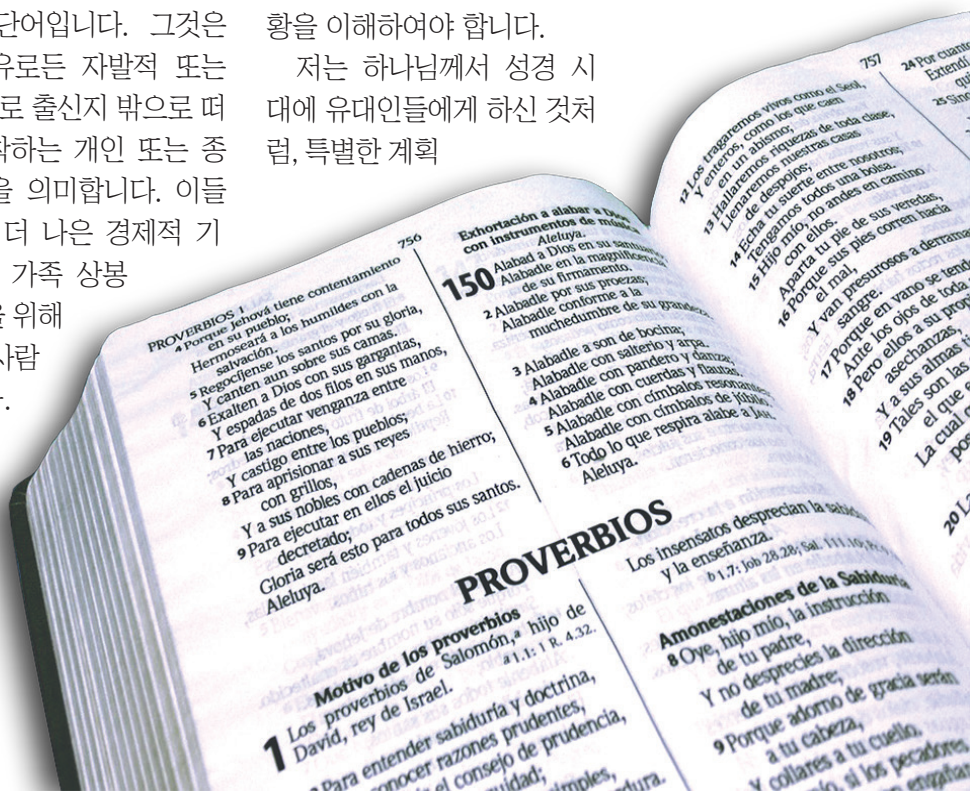
디아스포라신문의 창간에 즈음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주민 선교에 참여하시는 모든 동역자와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및 국내에 모인 이주민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더욱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국제디아스포라선교센터(ICDM·International Center for Diaspora Mission)가 출범하고 사역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교회와 선교기관이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와 관련된 사역에 더 많이 참여하는 일에 늘 생각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선교 전문가들은 다양한 창의적인 수단을 통해 접근이 제한된 국가에 진입하여 미전도종족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지난 세기, 전 세계의 대규모 인구 이동은 선교학적 현실의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최근 30여 년 동안 선교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국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이 국내로 이주를 하고, 종종 우리 옆에 머물며 이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Diaspora)'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로든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출신지 밖으로 떠나고 정착하는 개인 또는 종족 그룹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사업, 더 나은 경제적 기회, 공부, 가족 상봉 및 여행을 위해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한편 전쟁, 자연재해, 인종차별, 박해, 종교적 폭력 등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들이 2억 8천만 명이고, 한국에는 2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최근 펜데믹으로 그 수가 잠시 줄어든 듯하지만 앞으로 계속 급증하게 될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러한 디아스포라 이주 현상은, 오늘날 교회가 주도하여 영혼구령으로 이끌어야 할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점점 더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교회와 선교적 대위임령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처럼, 특별한 계획



아래 한국 디아스포라들을 세계 곳곳에 흩어 놓으셨고, 많은 타국 이주민을 국내로 모아놓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현상은 성경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지만, 디아스포라 선교론에 대한 논의는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새로운 것입니다. 이에 매월 발간하는 디아스포라신문이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의 열매를 촉진하고, 국내 지역교회와 이주민 선교 관계자들에게 정보의 공유와 사역의 허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취재 Repotage 르포

디아스포라신문 창간특집

지금은 '이주민 선교' 시대

■ 대전 나무아래교회 이야기

전 교인이 이주민 선교사가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한 명의 이주민 영혼이 선교사로 파송 받기까지...

"하나님의 모략과 열심, 이주민 사역자들의 사랑과 헌신 필요합니다"

지난 19일 대전 나무아래교회 이주민 선교사 임명식과 파송식이 진행됐다.

지난 6월 19일 대전 나무아래교회는 교회 설립 2주년을 맞아 이주민 선교사 임명식과 파송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MMTS 20기, 21기에 훈련받은 7명의 성도가 이주민 선교사로 임명 받았고, 중국인 유학생 J자매가 위디국제선교회의 선교사로 파송 받았다. 이주민 사역의 꽃인 역파송의 은혜를 목도하는 감동의 현장이었다.

대전 나무아래교회는 2년 전 대전 새로운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교회이다. 개척한 첫해 이상화 담임 목사와 성도 2명이 MMTS 20기 훈련에 참여하여 이주민 선교에 대해 도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21기 훈련에 5명의 성도가 참여하였다. 교인 전체 인원 15명 중 절반이 넘는 8명이 MMTS를 수료한 것이다. 나무아래교회는 향후 모든 성도가 MMTS 훈련에 참여하여, 전 교인이 이주민 선교사가 되어 이주민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

나무아래교회는 대전 도안동에 카페형 예배공간을 마련하고, 아름다운 화초를 가꾸어 주중에 방문하는 이들에게 쉼과 교제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배재대학교 내 SEM(국제과학기술자협력단) 유학생들과의 모임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으로 학교에서 모임이 어려울 때 유학생들이 편하게 모이고 교제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며, SEM 사역에 동참한 부부가 이곳을 찾는 유학생들을 섬기고 있다.

이번에 위디국제선교회의 선교사로 파송 받은 J자매는 9년 전 교환학생으로 SEM을 통해 섬김을 받았고, 소개받은 선교사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 2년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J자매는 7년간 교회 생활을 하며 매주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일대일 복음 양육 교재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등 중국 이주민을 향한 복음의 통로 역할도 감당하여 왔다. 그리고 2년 전 나무아래교회 개척에 동참하면서 MMTS를 수료하고, 이 땅의 이주민 선교사로 헌신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한 명의 이주민 자매가 선교사로 파송 받기까지, 그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모략과 열심을 실질적으로 마주한 사례이다. 그동안 많은 이주민 사역자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음을 자매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앞으로 J자매를 통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올 많은 영혼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된다. 더불어 함께 임명된 나무아래교회 이주민 선교사들이 대전지역 이주민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

글 **이상화 목사**(MMTS 20기, 대전 나무아래교회 담임)

■ 코로나 시기, 중앙아시아유학생센터 개척

일보후퇴 이보전진

투르크메니스탄 사역, 5명 제자가 한국에서 센터 태동에 크게 기여

비자발적 철수 아픔딛고 전욱·김현희 선교사 국내 유학생 사역 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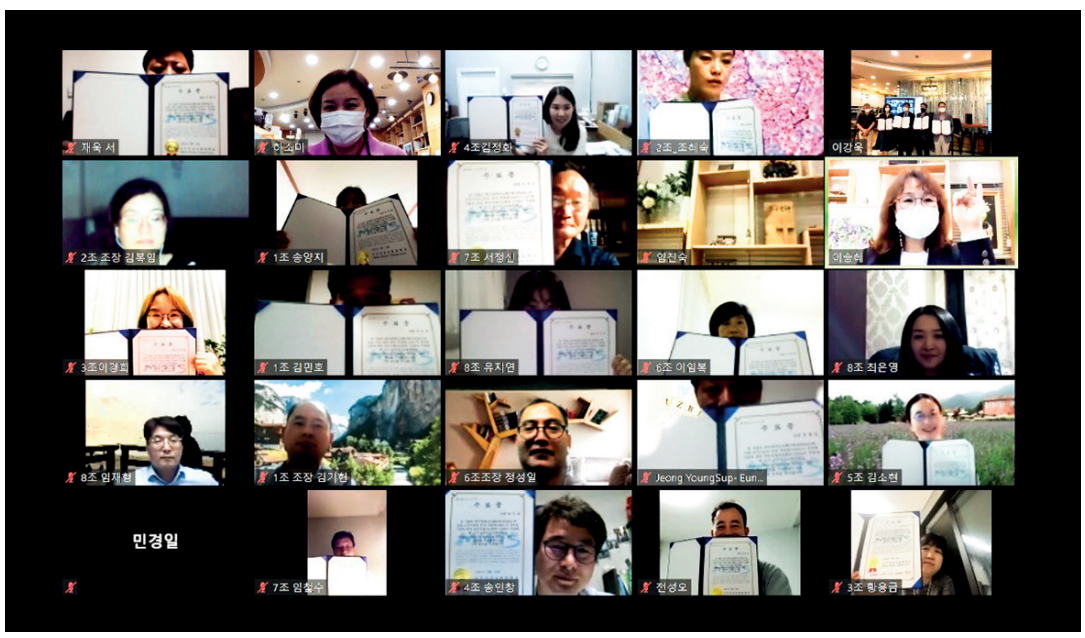
지난 6월 5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전인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기가 열리던 날, 성북구 월 중앙아시아유학생센터(CCAS, Center of Central Asian Students)는 중앙아시아 6개국 출신 9,000여 명의 유학생 가운데서도 실제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9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다. ⓒ이상호 객원기자

이주민선교훈련학교(MMTS)를 찾아서

‘이주민 선교’ »» 지금이 기회

MMTS는 ‘Migrant Mission Training School’의 약자

이주민과 함께 사는 이 시대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문 이주민 선교훈련기관이다.



의례히 선교라 하면 지역적 경계를 넘어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면 이미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만약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그동안 받아온 전도훈련이 무색하리만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경험을 할 것이다. 이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복음전도는 조금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이를 대비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이주민과 함께 사는 이 시대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문 이주민 선교훈련기관이 있어 찾아가 보았다.

2007년 처음 시작된 MMTS는 ‘Migrant Mission Training School’의 약자로, 14주 과정인 기본과정과 8주 과정의 심화과정으로 구분되어 현재까지 21기 수료생까지 배출했다. MMTS는 이주민 사역 분야에서 활발하고 건강하게 사역한 선교사들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주민 선교에 필요한 국내 이주민 연구, 이주민 전도 및 실습, 이주민 선교 포럼, 이주민 선교단체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과정을 수료한 훈련생들의 연합 사역과 정보 공유를 위하여 ‘땅끝이웃선교회’라는 동문모임을 운영하면서 사역 지원과 중보기도의 연합 공동체 모임을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있다.

MMTS는 이주민 선교에 헌신하였거나 관심이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 또는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이주민 선교에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듣는 ‘교육’과 실제적인 이주민 선교 사역자로서의 소양 함양을 위한 ‘훈련’ 간 균형을 맞추어 진행한다. 이로써 모든 과정을 수료한 후 이주민 선교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사역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MMTS는 위디국제선교회와 국제디아스포라선교센터(ICDM)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이주민선교단체협의회(KIMA), 로잔위원회 산하의 글로벌디아스포라네트워크(GDN),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안양 새중앙교회가 후원하는 이주민선교 분야의 공인된 훈련과정이다. 지난 14일 21기 훈련 수료식이 진행됐다. ⓒ 하소미 기자

현재는 귀국 이주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주안대학원대학교와 MMTS 심화과정을 진행 중이며, 이 훈련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참여하는 귀국 이주선교사들이 무려 37명에 달한다. 이미 여러 영역에서 확장되고 있는 이주민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허락한 선교의 기회임을 확신하며, MMTS를 통해 더욱 훈련된 사역자들이 대거 양성되기를 소망한다. **하소미** 기자

hexiaomei@naver.com

국경이 폐쇄되고, 하늘길이 닫히고,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선교사들이 추방되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복음을 확장시켜 가고 있었다...

곡동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유학생 센터를 방문하였다. 그곳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비자발적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전욱·김현희 선교사의 사역현장이다.

2019년 사역현장을 떠나 몸과 맘이 한없이 지치고 괴로울 때, MMTS(이주민선교훈련학교) 20기 과정에 참여한 전욱·김현희 선교사는 중앙아시아 유학생 센터를 고려대학교 인근에 개척하였다. 이들 부부가 개척한 때는 코로나 위기로 유학생들이 앞다투어 귀국할 시기였다. 유학생 센터도 정리를 고민해야 할 때에 오히려 설립을 한 셈이다.

현재 국내 투르크메니스탄 유학생은 55명 정도이다. 또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6개국의 유학생은 약 9,000여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 정도가 실제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데, 전욱·김현희 선교사는 본국의 지도자가 될 유학생 그룹을 주요 사역 대상으로 두고 있다.

무엇보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사역할 때, 선교사 부부가 직접 가르쳤던 5명의 제자가 한국에서 센터를 시작할 때 큰 도움을 주었다. 현재 이들 부부는 20여 명의 중앙아시아 유학생과 꾸준히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국어 교실과 일대일 성경공부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센터 방문에는 MMTS 21기 훈련생 김정화 선교사, 송인창 선교사와 작년 MMTS 심화반 과정까지 수료한 대전 나무아래교회 J(중국 유학생) 선교사가 함께 하였다.

센터 소개와 이곳에 자리매김하기까지의 과정을 들으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선교하고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다.

국경이 폐쇄되고, 하늘길이 닫히고,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확장시켜 가고 있었다. 비록 이날 월드컵 예선전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 팀이 패했지만, 이국땅에서 믿음의 형제자매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은 더없이 행복하고 기쁜 시간을 보낼 것이라 믿는다.

이상호 객원기자

matw2@hanafos.com

새로운 경험~
전세계 K_디아스포라의 Now & Here
! 〈아이앤유크저널〉
와 보세요~
inuc.net
*아이앤유크저널의 기획사업부는 교회의 각종 디자인 기획/ 출판/ 웹디자인/ 홈페이지를 제작해 드립니다.
gypy227@naver.com

다문화 가정,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의 대표적 다문화 가정...
구약은 '룻', 신약은 '브리스길라'

땅끝에서 이웃으로 찾아온 이들
내 앞마당이 선교지가 될 수 있어

땅끝에서 이웃으로 찾아와 세워진 다문화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며, 영혼구령의 대상이다. ⓒflickr

다문화 가정이 기독교 선교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의 한 부분임을 살펴보자. 특히 이주민과 연관 지어 볼 때, 다문화 가정은 선교 자체에 매우 전략적인 통로요, 에너지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복주시려고 세상 가운데 두신 두 구성원이 있다. 첫째는 교회이다.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두 번째는 바로 가정이다. 가정은 부부의 만남과 결혼을 통해 시작된다. 중매결혼이든 연애결혼이든 하나님의 주관하심의 결과물이기에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첫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경우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졌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가 되는 구성이며, 가정이 건강하고 든든해야 그 사회 또한 건강하고 질서가 존재한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사회 안에 다문화 가정이 세워지고 있다. 다문화 가정은 국적이 다른 두 부부가 이루는 가정을, 같은 국내인 부부가 이룬 가정과 비교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정작 두 국적을 지닌 부부들이 들으면 불편할 수 있는 명칭이겠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불린다. 한국사회 안에 다문화 가정은 농촌 총각과 이주여성 간의 결혼으로 이루어지고, 유학생, 난민, 국제 연애 등을 통해 도시에서의 다문화 가정의 출현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에서 출산한 이주민 2세들의 증가도 계속되고 있다.

이 다문화 가정이 기독교 선교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의 한 부분임을 살펴보자. 특히 이주민과 연관 지어 볼 때, 다문화 가정은 선교 자체에 매우 전략적인 통로요, 에너지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선교 분위기에서는 가정을 선교학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간과해왔다. 가족과 선교에 대한 대부분의 언급은 선교사 가족(선교지로 가족을 옮기거나 다른 문화권에서 선교사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나 해외 선교사 가족을 돌보는 정도로 여겼다.

그러나 성경은 초기 기독교 선교에서부터, 다문화 가정을 통해 선교의 전략적 중요성을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은 1세기에 기독교를 놀라운 방법으로 발전시켰으며 시공을 넘어 지금도 계속 그러한 힘을 내놓고 있다. 성경에는 이주민의 신분으로 다문화 가정을 이룬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성경의 룻이다. 신약성경에는 브리스길라가 대표적인 이주여성으로 다문화 가정을 이룬 경우이다. 이들은 다문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림을 그려낸 최고의 매력적인 이주여성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국문화에 대한 동화보다 이질감이 크다.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비교적 양성평등에 익숙한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다문화 가정을 꾸리고 느끼는 문화충격은 크다 하겠다. 고부간의 갈등이나 가부장 제도와 같은 정서는 견디기 어려운 이주여성의 애환이다. 게다가 우리 사회 안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힘없고 소외된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만큼이나, 그들을 두 팔 벌려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좋다고 하기에는 현실적인 거리감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을 향한 정부의 방침이나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 외국인 혐오증(Xenophobia, 제노포비아) 같은 생각들은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인 디아스포라(이주민)로서 외국에 나가 나그네의 신분으로 또는 다문화 가정을 꾸리며 사는 사람들이 무려 750만 명이 되질 않는가? 더 나아가 지정학적(Geopolitic)인 관점에서 함께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에 관한 인식이 필요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역교회의 역할이다. 모든 교회와 성도는 느헤미야 같은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개념에 친숙하여야 한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계 7:9)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현재 땅끝에서 이웃으로 찾아와 세워진 다문화 가정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며, 영혼구령의 대상인 사실을 알아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교회와 성도들은 내 앞마당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안디옥 교회처럼 지역교회로서 이주민 및 다문화 가정과 연합하여 선교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이승혜 기자
seunghyelee@naver.com

DN_202107_no.1.indd 10 2021-07-01 8:48:16

필리핀 교회의 선교 동원 및 훈련 프로그램 제작하는 KCCN

"미디어를 활용해 필리핀 디아스포라를 선교사로"

정기환 선교사
KCCN 대표

"흩어져 있다는 것은 복음 확산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연결되지 못하면 고립과 쇠잔의 위험성이 크다. 미디어는 이들을 연결하는 채널이며 연대를 가능케 한다"

미디어 사역은 떨어진 두 세계를 연결하는 사역이다. 시간과 공간의 거리를 미디어를 통해 연결할 수 있다. 기록되지 않았던 것은 없었던 것이라는 말이 있다. 과거의 생각이나 사건을 글이나 영상으로 담아 두면, 현재 또는 미래의 사람들이 그 과거를 공유할 수 있다. 지식과 정보가 빈약한 사람들도 미디어를 통해 탁월한 지식의 사람들이 연결되면 향상될 수 있다.

천국과 세상 역시 미디어를 통해 연결될 수 있다. 복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미디어에 담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KCCN은 미디어를 통해 선교하는 단체이다. 2008년에 KCN(Korean Christian Network)이라는 이름으로 필리핀 교민들을 위하여 시작되었다. 이후 필리핀 교회 리더십 훈련과 필리핀 교회 선교 동원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KCCN(Kalayaan Cyber Christian Network)으로 전환하여 사역하고 있다.

필리핀의 교회는 큰 성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목회자를 비롯한 리더십 훈련은 미진하다. 80%의 목회자들이 정규 신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사역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의 리더십과 사역에 도움이 될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사역자들을 훈련해 오고 있다.

또한 필리핀 교회는 선교의 대상일 뿐 아니라, 선교의 자원이요 주자들이다. 필리핀 교회의 성장은 선교를 위한 준비 작업이기도 하겠다. 1천2백만의 필리피노가 해외에 나가서 일하고 있다. 영어에 능할 뿐만 아니라 현지 언어 적응력이 높다. 이들에게 선교의 동기를 주는 콘텐츠 및 선교 훈련 콘텐츠를 필리핀선교협회(PMA)와 기타 단체들과 공동 제작하여 선교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의 상황을 야기하는 팬데믹에서 미디어, 온라인을 통한 사역의 중요성이 커졌다. 팬데믹과 비슷한 상황인 이주자, 디아스포라 영역에도 미디어 사역은 설 자리가 있다. 흩어져 있다는 것은 복음의 확산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연결되지 못하면 고립과 쇠잔의 위험성이 크다. 미디어는 이들을 연결할 채널이 될 수 있고, 그 채널을 통해 연대할 수 있다. 이들을 위한 훈련 콘텐츠 제작에 KCCN은 열려 있다.

금번 이주자 사역을 위한 디아스포라신문 발행은 의미가 크다고 믿는다. 이주자 사역에 관한 미디어 플랫폼의 일환이겠다. 이곳을 통하여 여러 정보가 모여지고 소통되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비디오 콘텐츠 제작이 필요할 때 기꺼이 KCCN은 동역을 기대한다. 다시 한번 신문의 창간을 축하드린다.

MMTS
Migrant Mission Training School
CONA International, Ltd.
NEXTMOV

"<디아스포라신문> 창간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창간 축하의 글

강대흥 선교사
KWMA 사무총장

국내 거주 이주민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Korean Dream)을 실현하고자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로부터 유학생과 난민들,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이들까지 다양한 이유에서 많은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아시아에서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국내에 몰려들면서 어느덧 '사회적 통합'이라는 말이 화두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주민들이 2030년에는 3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2050년에는 국내 인구의 10%를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적 예측을 전제로, 이들 다문화 가족들에게 출생하는 2세들의 사회적 적응의 이슈도 교회가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교회의 역할과 책임은 실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 가족들에게 손을 펼쳐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과 나그네에게 전달하는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디아스포라신문>이 창간된 것은 큰 기쁨의 소식
우리나라 디아스포라 사역 진일보 보여주는 증거
이주민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도구 역할 기대

우리나라에는 약 60,0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회의 25%인 15,000개 교회는 선교적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KWMA는 여기에서 약 10%의 교회가 다문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150개의 교회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나그네들을 위해 복음 사역의 센터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주민 사역자들의 소통과 교제의 장이 되고, 사역모델을 소개하는 〈디아스포라신문〉이 창간된 것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디아스포라 사역의 진일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디아스포라신문〉을 통해 국내 이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들이 자신들의 본국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소식들을 듣는다면 한국교회에 큰 격려와 자극이 될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신문〉 발행을 위해 애쓴 모든 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문을 통해 하실 일들을 생각하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문을 통해서 이주민 사역정책과 더불어 선교의 열매가 세계교회에 건강한 모델로 소개되기를 바랍니다.

"이주와 선교의 새로운 역사 써가기를"

창간 축하의 글

길강묵 안수집사
화성외국인보호소장

이주민 선교를 위한 디아스포라 신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세기 말, 기독교 초기 공동체는 '죠선 크리스도인회보'(The Christian Advocate)와 '그리스도신문'(The Christian News)을 발간하였습니다. 1896년 창간된 독립신문에 이어 순한글로 쓰인 이 신문은 단순한 정보전달의 매체를 넘어 크리스천의 행동과 실천의 장으로서 초기 믿음의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민 사회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사회구성원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교 영역은 물론 우리 삶의 방식과 법, 제도에 대한 생각과 인식도 함께 변해야 합니다.

외국 태생 인구가 50%에 달하는 호주는 이민자를 받아들인 지 7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백호주의'를 포기하였습니다. 호주가 이민 국가로서 국격을 높이는 데에는 신문이나 방송 등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호주에는 130여 개의 다민족공동체 라디오방송국이 있으며, 100개 이상의 언어로 주당 2,000시간 넘게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 TV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무려 75개 언어로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주의 시대(The Age of Migration) 걸맞는 매체
소통의 창구이자 실천의 장으로 민주주의 구현 도구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공간이 될 수 있길

다문화는 사회 구성원을 그룹핑(grouping)하며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지 않고, 민주주의 실천에서 찾아야 합니다. 엘리트나 비엘리트, 건강한 자와 투병 중인 자, 신체적 장애로 살아가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 나아가서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출신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주의 시대(The Age of Migration)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일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신문이 초대 기독교 신문과 같이 소통의 창구이자 실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법제도와 정책, 선교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차분한 분석과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본향을 향해 가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신문이 본향을 향해 가는 모든 사람이 서로 부대끼면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대한민국 이주와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대합니다.

디아스포라 사역을 시작하기 전 붙들어야 할 두 가지

"사역지 내 디아스포라 그룹에 대한 정보 수집, 디아스포라 이주민의 세계적 성향 조사해야"

테드 야마모리 박사 (Dr. Ted Yamamori)
국제로잔위원회 고문, 위디국제선교회 고문,
국제기아대책 고문

저는 로잔운동의 전 국제 이사이며 현재 선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잔은 이주하는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효과적인 사역을 탐구하고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신문을 통해 한국 성도들과 이 주제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디아스포라 선교학은 '출신지 밖에서 사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명에 대한 이해와 참여'라고 정의됩니다. 사람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동 중인 새로운 이웃과 복음을 나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동 중인 사람들은 종종 기존의 제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신앙을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또는 이민자 교회는 오늘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중 하나입니다. 디아스포라 이주민들을 섬길 때 우리는 전체론적(holistic) 접근의 중요성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8장 19~20절과 마가복음 22장 37~39절은 영적 요구뿐만 아니라 신체적 요구도 강조합니다. 아울러 수직 및 수평 차원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즉, 차별과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대위임령은 제자를 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웃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 전반에 걸쳐 성경은 교회가 모든 사람을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독특하고 보완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의 전체 생명을 지지하기 위해 합쳐졌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예언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론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돕는 목자였습니다. 기능적으로 분리된 이 두 사람의 사역은 사실 서로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론적 사역의 개념은 선지자들의 삶과 가르침에서도 분명합니다. 그들은 남성과 여성에게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서로의 수평적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시했습니다. 호세아는 수직적 관계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묘사하고 그 추구를 옹호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수평적 관계를 이루도록 요청했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사 1:17)고 말씀합니다.

신약은 또한 전체적인 사역 개념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전도와 사회적 섬김을 일치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초대교회의 삶이 예수님의 주제를 이어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가르치고, 설교하고, 치유하는 것은 별도의 기능이었지만 모두 예수님의 전체 사역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행하여야 하는 사역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1세기 초대교회의 역사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전체론적 사역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좋은 소식을 선포(전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충족(사회적 행동)하는 데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 전략은 교회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경적 전체론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특히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 사역의 맥락에서 대위임령의 성취에 필수적입니다.

저는 한국의 교회들이 디아스포라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250만 명의 이주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 근로자, 유학생, 난민 등의 이주민입니다. 우리는 국내외의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 한국과 사역 지역 내의 디아스포라 그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이민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십시오. 그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들의 필요는 무엇인가? 다른 교회들은 그들에게 사역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주민들 가운데 복음에 부정적인 그룹과 긍정적인 그룹을 발견하십시오. 그들의 반응에 집중하십시오. 그런 다음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개발하십시오.

2. 디아스포라 이주민들의 세계적 성향을 조사하십시오. 로잔에서 발행한 한국어판인 디아스포라 선교학(Scattered and Gathered: A Global Compendium of Diaspora Missiology)을 통해 토론 그룹을 구성하고,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주제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국이주민선교협의회(KIMA)와 유대관계를 맺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아울러 한국밖에 살고 있는 750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과 선교적 플랫폼을 이루는 사역에 참여하십시오. 한국교회는 국내외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디아스포라 선교의 도전에 개인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디아스포라 선교학은 '출신지 밖에서 사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명에 대한 이해와 참여'라고 정의됩니다. 사람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동 중인 새로운 이웃과 복음을 나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동 중인 사람들은 종종 기존의 제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신앙을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습니다.

DN_202107_no.1.indd 13 2021-07-01 8:49:24

“나의 미용실은 교회이고, 선교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헤어 스타일리스트 저넷 자매 인터뷰

송탄 공군기지 앞에는 여러 민족의 발걸음이 북새통을 이루곤 한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여인들의 독특한 머리 모양이다. 화려하고 개성미가 넘친다. 그것은 세 갈래로 엮어 땋은 헤어 스타일인 블레이드 머리이다. 알고 보니 블레이드 머리를 한 여성들은 미국, 한국, 나이지리아, 가나, 카메룬 등 국적이 다양하다. 이렇게 각 여성의 국적을 정확하게 알려준 사람은 바로 블레이드 머리 장식을 제공한 헤어 스타일리스트 저넷(Jeannet) 자매이다.

그는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세 아이의 엄마이며, 송탄 일대에서 복음 전도자로 잘 알려져 있다. 카메룬 이주민으로서 한국 생활 10년 차의 내공을 갖추고, 현재는 기독교 상담학 박사과정 중에 있다.

- 미용실을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주민으로서 생활하며 자녀 양육을 위해 무엇이든지 일해야 하는데, 아프리카 여성들이 선호하는 블레이드 솜씨가 있어서 7년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미용실 운영도 어려워 임대료 35만 원을 내기도 정말 벅차다.”

-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는가?

“세 명 모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한국 학생들과 똑같이 배우고 함께 뛰놀고, 잘 자라고 있다. 한창 클 나이라 먹는 양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대느라 등골이 휜다. 하하하. 음악이나 컴퓨터 등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마음껏 시키고 싶다. 그래도 아이들이 잘 자라 주고 한국말을 잘하여 예쁘고 대견하다.”

- 복음 전도자라고 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며 사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

“나에게 미용실은 교회이고 일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선교지이다. 많은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주일에는 당연히 미용실을 닫고 교회에서 예배와 사역에만 집중하고 있다.”

- 이주민으로서 한국 생활이 힘들지 않은가?

“왜 힘들지 않겠는가? 그러나 한국은 정도 많고 사람들이 좋아서 어려움이 있어도 도움을 받고 금세 이겨낼 수 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한국으로 이주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한국교회와 이주민 선교를 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기도하고 있다.”

환하게 웃으며 인터뷰에 응해 준 저넷 자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 조만간 공군기지 정문 앞에서 노방전도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송탄시에 집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원활하게 허락을 받아 전도집회를 진행하게 해달라고 기도제목을 내놓는다. 한국교회도 미처 시도하지 못하는 영적인 일의 열심에 숙연해진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이주민 선교의 잠재력과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매우 가벼웠다.

카메룬 출신 저넷 자매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복음 전도자로 활발히 사역하고, 기독교 상담학 박사과정도 밟고 있다. 그는 “앞으로 한국교회와 이주민 선교를 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저넷 자매가 미용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임진숙 기자
divinegrace2237@gmail.com

알면 유용한 이주민 정책 및 사역 정보 <1>

이주민 그들은 누구인가?

□ 이주민 선교의 대상 이해

구분	대상	복음전도	인권/복지	
정 주 이주민	▪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자, 2세) ▪ 탈북자, 난민(인정)	**목회적 접근**	▪ 사회통합지원 ▪ 생활 멘토링 ▪ 교육	▪ 친구되기 ▪ 취업 ▪ 상담 (정서, 노무, 법률) ▪ 출입국 체류 ▪ 한국어 ▪ 한국문화
비정주 이주민	▪ 근로자 ▪ 유학생 ▪ 난민(불인정)	**선교적 접근** (양육, 제자화, 역파송)	▪ 무료진료 ▪ 쉼터 ▪ 물품지원	

"이주민을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그분들을 '선교'의 대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아니라, 그분들을 우리 '안'에 있는 사람임을 보고 '목회'의 대상으로 대해야 한다."(제11회 IFMM)

• 다양한 체류자격 및 상황

구분	체류자격 및 상황
노동자	▪ 합법적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노동자 (C-4, E 계열, F-2, F-4, F-5, F-6, H-1, H-2) - 단기간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하는 노동자 (C-4) - 전문기술을 가지고 해당 전문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노동자 (E-1~7) - 비전문 단순업종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노동자 (E-9, E-10, H-2, F-4) - 취업활동을 하지만 가족을 동반하지 못하는 노동자 (E-9, E-10, H-2) - 취업활동 중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을 동반할 수 있는 노동자 (E-1~7, F-4) ▪ 체류자격 외의 취업활동을 하는 노동자 - 취업활동이 불가한 비자로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하는 노동자 (C-3, D-4, G-1, ...) - 허용된 취업의 범위(업종, 시간)를 넘는 취업활동을 하는 노동자 (D-2, H-2)
유학생	▪ 유학(D-2)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며 공부하는 유학생 - 학부생, 석 · 박사 과정, 박사후 과정, 교환학생 ▪ 일반연수(D-4)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며 공부하는 유학생 - 어학연수, 일반연수, 초중고생 연수, 동포연수
국민의 배우자	▪ 결혼이민(F-6)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는 국민의 배우자 ▪ 영주(F-5)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는 국민의 배우자 ▪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의 배우자
이주 배경 자녀	▪ 한국 국적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 ▪ 외국 국적의 중도입국 자녀 ▪ 무국적 자녀
난민	▪ 난민 인정 신청자 신분으로 심사 중이거나 소송 중인 외국인 (G-1) ▪ 심사 결과 난민으로 인정된 난민 (F-2) ▪ 심사 결과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어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외국인 (G-1)

□ 이민정책 관련법 (법무부)

구분	출입국관리 시대 (1949년~1980년대 중)	체류외국인 급증 · 다양화 시대 (1980년대 후~2000년대 초)	선진 출입국 · 외국인 정책 시대 (2000년대 중~현재)
주요 업무	▪ 국민 출국 통제 ▪ 외국인 입국 통제	▪ 외국인력도입제도 마련 ▪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 외국인 인권보호 강조	▪ 선진 국경관리 ▪ 관광객, 투자자 등 우수인재 유치 지원 ▪ 체류외국인 효율적 지원 ▪ 국격에 맞는 난민제도 ▪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합 교육
정책 대상	▪ 출국 국민 ▪ 입국 외국인	▪ 산업연수생 ▪ 중국동포 등	▪ 모든 신분의 출입국자로 정책대상의 다양화

□ 이민정책의 주요 특성

국가의 주권 행위(국가의 재량에 따라 출입국 및 활동 범위를 결정)와 국익 우선의 원칙(국익이 제한 또는 허용의 기준), 상호주의 원칙을 따른다. ❋ 정보제공: 김래산 선교사(위디국제선교회) ▶(연재)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HOME INFO.

국내 이주민 선교의 파트너
디아스포라신문
DIASPORA newspaper
www.diasporanews.kr

회장 발행인 **황덕영** 목사
사장 편집인 **문창선** 목사
편집국장 **이창배** 목사
총괄본부장 **이승혜** 기자
seunghyelee@naver.com

편집국 수석기자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편집국 기획부 **임진숙** 기자
divinegrace2237@gmail.com

편집국 사회부 **조흔정** 기자
chohunjung@hanmail.net

편집국 교육부 **하소미** 기자
hexiaomei@naver.com

편집국 **이상호** 객원기자
matw2@hanafos.com

온라인 편집팀장 **김혁준** 목사
loke0114@gmail.com

행정/재정팀장 **이진아** 선교사
izina@hanmail.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번지/ 새중앙교회 세계선교센타 508호

대표전화: 031-420-6311
이메일: witheeman@gmail.com

구독 및 광고문의는 항상 가능합니다. 대표전화 혹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이주민전문보험
특화팀
031-420-6306
막대한 의료비
보험으로
준비
하세요!!

PHOTO GALLERY

KIMA 2차 리스닝 콜

한국이주민선교협의회(KIMA, 상임대표 신상록 목사) 2차 리스닝 콜이 6월 1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관계자들과 KIMA 회원 단체 사역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줌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이주민 조기 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 방안 등이 활발히 논의됐다.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매년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세계복음주의연맹(WEA)과 난민하이웨이파트너십(RHP, Refugee Highway Partnership)은 세계 복음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6월 20일과 27일을 난민 주일로 지킬 것을 당부했다. WEA, RHP 등은 '세계 난민 주일'(World Refugee Sunday)을 맞아 고통받는 난민을 기억하고, 그들이 처한 현실과 필요를 돌아보아 기도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주민선교사 임명식과 파송식

대전 나무아래교회에서는 지난 6월 19일 교회 설립 2주년을 맞아 MMTS 20기, 21기 훈련을 마친 성도 7명의 '이주민선교사 임명식과 파송식'이 진행되고, 중국인 유학생 1명의 '위디국제선교회 선교사 파송식'이 함께 진행됐다.

만나교회, 이주민 선교 주일 행사

만나교회(김병삼 담임목사) 외국인선교부는 6월 19~20일까지 '이주민 선교 주일'을 올해 처음 진행했다. 만나교회는 2018년부터 국내 거주 이주민과 탈북민 사역 교회들을 선발하여 2년간 협력하는 MMP-W(Manna Mission Plan-World) 사역을 하고 있다.

제6회 다문화 교육 포럼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이사장 신상록 목사)는 6월 22일 포천 다문화국제학교 2층 강당에서 제6회 다문화 교육 포럼을 '다문화 교육의 새 지평, 다양성 포용과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개최했다.

KWMA, 언어별 다문화 사역 리더십 전략회의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지난 6월 7일 언어별 다문화 리더 모임을, 지난 25일에는 다문화 사역 리더십 전략회의를 KWMA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KWMA는 코로나 시대 국내에 들어온 이주민, 다문화 가정 사역에 관심을 갖고 교회와 선교단체, 교단 선교부 등과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IFMM·GCMF 코로나 이후 이주민 사역 포럼

국제이주자선교포럼(IFMM, 이사장 유종만 목사)과 글로벌시티이주자포럼(GCMF, 이사장 김윤하 목사)은 6월 28일 CTS기독교TV 컨벤션홀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Breakthrough WAY MAKER)이라는 주제로 코로나 이후 선교와 한국교회와 이주자 선교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글로벌비전센터, 기념예배

글로벌비전센터(GVC, 대표 문성주)는 6월 26일 서울 관악구 낙성대로 센터에서 GVC 500회 특별새벽기도회 기념예배를 드리고 축하와 감사,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공지사항

이주민 사역 관련 사진(원본 3~4장)과 간략한 소식을 이메일(jsowuen@gmail.com)로 보내주세요. 다음 달 디아스포라신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단, 지면이 한정되어 게재되지 못할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